

냥신낙스가



[해제]

"<냥신낙사가>는 두루마리에 필사된 한글가사이자 규방가사로 정확한 작자와 창작연대는 알 수 없다. 작자는 모친의 환갑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땅을 방문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며 여인으로서의 삶이 답답하고 고달픔을 노래하고 있다. 다른 규방가사와 마찬가지로 중국 고사(故事)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글귀 등을 인용하였다. 작품의 전반부는 환갑잔치에서 즐기는 모처럼의 흥을 표현하였으며 후반부는 봉제사와 길쌈, 방적 등과 같은 여인의 소임을 나열하였다. 잔치를 통해 모처럼 노동에서 벗어난 여인들이 모여 회포를 풀며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 아쉬움은 다음 잔치를 기약하며 달랜다. "

[원문]

냥신낙사가

천도순환 십이시의 냥신이 제일이요
인싱일세 빅년간의 낙사가 웃듬이라
◆ᄇᄇ원 굳계준슈 니티빅이 노리하고
늘니촌 친척정화 도연명이 즐거하니
운장과 쳐스들도 이풍뉴 싱각거든
우리는 녀조이라 심규의 싱장하여
청춘의 죠흔년광 요조히 잘아니여
슴월도화 작작시에 의기가인 노리로서
굳조호구 되야셔라 빅냥아지 우귀하니
부모형데 멀이하고 ◆관소식 간간하다
식시절의 속므움의 싱조싱녀 흥온후의
흔가를 다맞치고 상방평의 썬을밧아
남녀가 달나스니 명스딛천 못갈망정
ᄇᄇ령부모 흥조흥은 문왕후비 노리움고
적적죽간 조우괴는 위국부인 싱각이라
나도쏘흔 일반이라 고인지스 경영터니
장싱불스 약이업셔 부모종천 망극하라
츄월츄풍 등흔도의 두리밧히 셤이나니
분슈의 가을바롬 가인회포 뉘흥온고
년광은 느저스나 동심이 미기하여
슈룽촌 죽니관의 죠망을 디히안자
역역흔 소년심스 광풍의 썬엿더니
동창의 식베가치 조흔소식 전흥오니
친가현딜 국션이가 청녀를 치질하며
빅운하고 흥노말이 우리조친 환갑이라
아조마님 흥초하셔 일석동낙 흥웁소서
잇되가 어느썬뇨 정스년 둥춘일쇠
빙셜은 녹아지고 황풍셔일 조흥오니

심신이 쇠락하고 괴운이 시로느니
 구포춘 죠양하의 봉황이 날이논닷
 군주의게 품명하고 일관불너 턱일하며
 익조현서 선후하고 고토로 지향할제
 형강의 비를불너 양좌촌 도라드니
 인물은 이석하나 손천이 의구하다
 동명은 심방이라 승일심방 조출시고
 손명은 경손이라 고손경앙 이아인가
 뉴하동의 죽도조로 한상국의 문익드니
 빅중계남 니외들이 휴슈하고 승당하니
 헛부다 우리남익 어느덧 빅발이라
 왕스를 침각하니 헛부고 가쇼로다
 관중헌 방누모조 초석의 못모히니
 북천을 지향하여 소일지탄 그지업다
 보현손 김흔속이 우리동당 만스오니
 빅슈분장 우리종남 규위지회 간절하다
 나의부친 노경시에 지성으로 봉양하든
 용의모조 못보오니 왕고닉금 침각하익
 일일이 생심일쇠
 유관할스 인동익이 모조가 함씩오니
 지년간일 유슈갓고 오논조미 엇더하고
 경일을 당하오익 합당이 현슈하니
 상지하지 봄바롬의 철슈화가 향기느니
 일조불소 국션이논 처무로 현축하고
 관동종손 지중형데 변관청포 거동조코
 신조의 허마하니 나의초조 니익일쇠
 유조유녀 신광답은 신기하다 광경잇고
 옥동안은 남산답은 여남스지 축슈하니
 현속헌 거동보소 종손부 괴특하다
 초초로 불너오니 선후잇게 다치오니
 유관할스 금호답이 천리신구 압셔우고
 부녀니외 상술하야 나의스랑 혼정업니
 유흔정속 석포손부 후기히 들어오니
 녹군조의 후예로서 장부인의 괴익밧아
 유식하고 속취흙이 동니가 드물도다
 깃겁하다 우리중데 왕스셜분 리히히니
 익들하다 식말딜부 이번의도 못보오니
 일촌의 동족들이 죠석으로 모혀드니

노쇼는 달늑스나 정의는 일반이라
 우리네 일평상의 이시절 이그회를
 다시엿기 열여우니 일변낙스 업슬소냐
 진스족남 익녀로다
 저얼골 저심덕의 천리도 알슈업니
 놀기조흔 보문답이 발스슴 후엇더니
 호스가 다마하니 그스정 절박하다
 달아의 직종반과 솜종딜 두스룸이
 초제로 설두하며 동셔로 영접하니
 히마다 풍년낙세 가가이 쥬찬이요
 회문이 불원하니 진미가 만반이라
 설창손 두견화로 만월갓치 썩을수어
 방초로 조리하여 초리로 좌정하니
 슈석의 빅슈노인 셔왕모의 요지로쇠
 우습다 이니몸이 상좌의 가란말가
 식시절 부인니와 나간쌀니 간간하니
 위시의 화슈촌이 송당의 진솔회라
 만화방창 조흔곳의 솜월냥신 이안이나
 단단한 밤이슬은 취흔손을 머무리고
 벌목정정 황조소리 나의벗들 불너오니
 흥강슈 너른가이 불가구스 회포마소
 송칙의 열킨풀이 종족지정 비할시라
 무우의 춘복괴성 풍뉴되기 일반이요
 난정의 뉴상곡슈 창셔유정 완연하다
 출가외인 우리동뉴 고향의도 손이로쇠
 쥬인의 지도티로 네의을 좃초보니
 교교빅구 머무르니 기인여옥 이안이나
 아유가빈 조흔곡조 오늘날을 길게하식
 근의을 불작시면 정진이 위악이라
 춘풍을 희석하니 낙이망반 출연마는
 동문의 춤을츄니 디희부인 가소로다
 부녀의 상덕이야 유희하기 당할쇼냐
 우리네 노경이라 경벽이 만스오니
 부모구고 뉘신후의 금상히운 익은곡조
 우지낙지 심정으로 울상금지 할야하니
 이후의 남은광음 임의티로 보닐지라
 남춘복춘 추축하면 그광경 좃컨마는
 그러도 일변싱각 방티할가 조심되야

호락무황 실술시를 일일삼복 허옇거든
 허물며 절문동뉴 소임이 만흔지라
 환소군의 녹거로서 슈형부도 허온후의
 잉광의 척상들어 군조와 재미하고
 간슈가의 말밤키셔 동묘제스 받드옴고
 석를싸라 길습할제 허물될가 조심하여
 봄날이 화창하며 초목이 잉동거든
 가가이 척상하며 좁농을 힘을셔셔
 지현지황 명주로서 공조의 옷슬짓고
 황조우비 관목허이 칠기줄이 길어오면
 시익식확 근고하여 위치위격 허온후의
 군조의상 받들어서 복지무역 발아옴고
 칠월춘풍 빅노시에 촌촌면화 승익하고
 팔월추고 천고청이 목화짜기 실시말나
 적화습경 김흔밤이 직임방적 속히하고
 구월추슈 허올적의 농부를 거둔후의
 일년공녁 마치옴고 남은날이 편허니라
 성인외 토크지법 각별이 명념허야
 선동옥녀 푸문후의 교훈을 극진허며
 공보문칙 현모되고 손남문호 창덕허면
 일심의 명화되고 후세에 일흠잇서
 만되유전 허올이니 그안이 다횡할가
 오늘날 노림이야 일시의 승스로서
 춘광이 편시되고 성면이 난지허면
 초루의 약흔실이 날빛흘 못미느니
 각각으로 도라가셔 헛더이 침각허면
 흥진비리 허논마음 고금으로 일체니라
 스창의 빗긴달이 사군여만 회포되고
 우후강남 안북비에 형데침각 간절하고
 오쥬명월 말근밤이 고인침각 금할소냐
 쥬야불스 물이되면 빅니동뉴 허리오며
 후중불천 손이되면 천리상봉 허련마는
 인심이 동물이라 조동모셔 허논중의
 규중의 쥬리흠이 우리의 직임이라
 출입이 어려우니 회합이 용이허라
 적인중부 본덕이라 풍운갓치 헛터지면
 상임의 오리발이 셔신도 희소허니
 흥중의 스희소회 뉘능히 다할소냐

세정업는 우리경경 속히오라 직촉하고
유희갓흔 나의초즈 편히오소 부탁하니
약흔즈부 어린손녀 가익하고 바랄지라
오날밤 지늬오면 니장초 씨날지니
이이직슨 석양벗치 무정하기 저덧흔가
안계촌 저문면고 염염이 모허드니
비입심상 빅성가의 연즈는 깃딤리고
조권비이 지환하니 슈풀마다 식소리라
우리도 파좌하고 각지기가 활지어다
면면이 악슈하야 도로혀 말이업니
무심흔 저춘초도 년년이 푸르거든
우리는 스름이라 후기가 업슬소나
녹십칠십 노인들은 빅년영일 강건하고
숨십스십 동축들은 가녀영부 경스보고
이십청춘 절문이는 부녀직분 극진하면
날도또흔 도라가셔 쥬스손 불노약의
아힘들 성심밧아 녹군황발 무강하여
직명년 그미세의 우리빅남 환갑되면
쏘다시 도라와셔 이모임 허여보시
적적흔 심중설화 낫낫치 다할지면
니티빅의 청천장지 오히려 부족일닷
어와 동뉴들아 니말숨 신청하소
냥신이 무흔하고 낙스가 쏘오느니
심회를 과이말고 뒷괴약을 명념하소

[현대역]

냥신낙사가

천도순환(天道循環) 십이시(十二時)1의 양신(良辰)2이 제일이요
 인생일세(人生一世) 백년간에 낙사(樂事)3가 으뜸이라
 ◆ᄇᆞᆫ원(판독불가) 군계준수 이태백(李太白)이 노래하고
 율리촌(栗里村) 친척정화(親戚情話)4 도연명(陶淵明)이 즐겨하니
 운장(雲長)5과 처사(處士)들도 이 풍류(風流) 생각하거든
 우리는 여자라 심규(深閨)6에서 성장(生長)7하여
 청춘(青春)의 좋은 영광 요조(窈窕)하게8 잘라내어
 삼월도화(三月桃花) 작작9시에 의기가인10 노래로서
 군자호구(君子好逑)11 되었어라 백양당지(白楊當地)12 우귀(于歸)13하니
 부모형제 멀리하고 ◆관소식 간간(懇懇)14하다
 새 시절의 속마음에 생자생녀(生子生女) 하온 후에
 혼가(婚嫁)15를 다 마치고 상방평의 본을 받아
 남녀가 달랐으니 명산대천(名山大川) 못갈 망정
 ᄇᆞᆫ령부모 하자함은 문왕후비(文王后妃) 노래이웁고
 적적죽간(簾簾竹竿)16 조우기는 위국부인 생각이라
 나도 또한 일반이라 고인지사(故人之事) 경영터니
 장생불사(長生不死) 약이 없어 부모종천(父母終天)17 망극하라
 추월춘풍(秋月春風) 등한도에 두리 밑에 서리 나니
 분수(汾水)의 가을바람18 가인회포(佳人懷抱) 뉘 하온고
 연광(年光)은 늦었으나 동심이 미개하여
 수룡촌 죽니관의 조망을 대해 앉아
 역력(歷歷)한 소년심사 광풍에 띄웠더니
 동창(東窓)에 새벽같이 좋은 소식 전하오네
 친가(親家)현질(賢姪)19 국선이가 청려(靑驢)20를 채찍질하며
 배웅하고 하는 말이 우리 자친(慈親)21 환갑이라
 아주머님 행차하셔 일석동락(一席同樂)22 하옵소서
 이때가 어느 때뇨 정사년(丁巳年) 중춘(仲春)23일세
 빙설(氷雪)은 녹아지고 화풍서일(和風瑞日)24 조화롭네
 심신(心身)이 쇠락(衰落)하고 기운이 새로 나니
 구포춘 조양하의 봉황이 날아가는 듯
 군자에게 품명(稟命)25하고 일관(日官)26 불러 택일(擇日)하며
 애자현에서 선후(先後)하고27 고토(故土)28로 지향(指向)할 제
 형강(荊江)의 배를 불러 양자촌 돌아드니
 인물은 이석하나 산천(山川)이 의구(依舊)29하다
 동명(洞名)은 심방이라 승일심방 좋을시고

산명(山名)은 경산이라 고산경앙(高山景仰)³⁰ 이 아닌가
 유하동의 죽도자로 한상국의 문에 드니
 백중계(伯仲季) 남(男) 내외들이 휴수(携手)³¹하고 승당(陞堂)³²하니
 허무하다 우리 남매 어느덧 백발이라
 왕사(往事)³³를 생각하니 허무하고 가소롭다
 관중(款重)³⁴한 방누모자(母子) 차석(此席)에 못 모시니
 북천(北天)을 지향하여 소일지탄(小一之歎)³⁵ 그지없다
 보현산 깊은 속에 우리 동당 많사오니
 백수분장 우리 종남 규위지회 간절하다
 나의 부친 노경(老境)³⁶시에 지성(至誠)으로 봉양(奉養)하던
 용의 모자(母子) 못 보오니 왕고래금(往古來今)³⁷ 생각함에
 일일이 생심일쇠
 유관(有關)할사 인동댁이 모자(母子)가 함께 오니
 지나간 일 유수(流水)같고 오늘 재미 어떠하고
 경일(慶日)³⁸을 당하움에 함당하게 헌수(獻壽)³⁹하니
 상지하지(上枝下枝) 봄바람에 철수화(鐵樹花)⁴⁰가 향기나네
 일자불소 국선이는 채무(彩舞)⁴¹로 헌축(獻祝)하고
 관중 종손(從孫)⁴² 재종형제(再從兄弟)⁴³ 변관 청포(靑袍)⁴⁴ 거동좋고
 신조의(臣朝衣) 하마(下馬)하니⁴⁵ 나의 차자(次子)⁴⁶ 내익 일쇠
 유자유녀(有子有女) 신광집은 신기하다 광경있고
 옥동(玉童)⁴⁷ 안고 있는 남산집은 여남산지(如南山之)⁴⁸ 축수(祝壽)하니
 현숙(賢淑)한 거동보소 종손부(從孫婦) 기특하다
 차차로 불러오니 선후있게 다치오네
 유관(有關)할사 금호집이 천리신구(千里神驅) 앞세우고
 부녀내외 상솔(相率)하여 나의 사랑 한정(限定) 없네
 유한 정숙(幽閑貞淑)⁴⁹ 석포 손부(孫婦) 후기(後期)에 들어오니
 육군자(六君子)⁵⁰의 후예로서 장부인의 기맥(氣脈)받아
 유식(有識)하고 숙취(夙就)⁵¹함이 동리(洞里)에 드물도다
 기꺼하다 우리 중제(仲弟)⁵² 왕사(往事)설분(雪憤)⁵³ 이렇게 했네
 애들하다⁵⁴ 새 맘 질부(姪婦) 이번에도 못보네
 일촌(一村)⁵⁵의 동족(同族)들이 조석(朝夕)으로 모여드니
 노소(老少)는 달랐으나 정의(正義)는 일반(一般)이라
 우리네 일평생에 이 시절 이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우니 일번 낙사(樂事) 없을 소냐

 진사족남 애녀(愛女)로다
 저 얼굴 저 심덕(心德)⁵⁶에 천리도 알 수 없네
 놀기 좋은 보문집이 발사슴 하였더니

호사(好事)가 다마(多魔)하니⁵⁷ 그 사정 절박하다
 질아(姪兒)⁵⁸의 형제종반(從班)과 삼종질(從姪)⁵⁹ 두 사람이
 차례(次第)⁶⁰로 설두(設頭)⁶¹하며 동서(同壻)로 영접하니
 해마다 풍년낙세(豐年樂歲) 가가(家家)이 주찬(酒饌)이요
 회문이 불원하니 진미(珍味)가 만반(滿盤)이라
 설창산 두견화로 만월(滿月)같이 떡을 구어
 방초(芳草)로 자리하여 차례로 좌정(坐定)하니
 수석(水石)의 백수노인(白首老人) 서왕모(西王母)의 요지(瑤池)⁶²로세
 우습다 이내몸이 상좌(上佐)의 가란 말인가
 새 시절 부인네와 나간 딸네 간절하니
 위시(爲始)의 화수촌(花樹村)에 송대(宋代)의 진솔회(眞率會)⁶³라
 만화방창(萬花方暢)⁶⁴ 좋은 곳에 삼월 양신(良辰) 이 아니냐
 단단한 밤 이슬은 취한 손을 머무리고
 벌목정정(伐木丁丁)⁶⁵ 황조(黃鳥)⁶⁶소리에 나의 벗들 불러오네
 한강수(漢江水) 너른 강가에 불가 구사(舊事) 회포마소
 송백(松柏)의 얽힌 풀이 종족지정(種族之情) 비할시라
 무우(舞雩)⁶⁷의 춘복기성(春服既成)⁶⁸ 풍류(風流)되기 일반이요
 난정(蘭亭)⁶⁹의 유상곡수(流觴曲水)⁷⁰ 창서유정(暢敘幽情)⁷¹ 완연하다
 출가외인(出嫁外人) 우리 동유(同遊)⁷² 고향에서도 손님이로세
 주인의 지도대로 예의(禮義)를 좇아보니
 교교백구(皎皎白駒)⁷³ 머무르니 기인여옥(其人如玉)⁷⁴ 이 아니냐
 아유가빈(我有嘉賓) 좋은 곡조 오늘날을 길게 하세
 근의를 불작시면 정진(精進)이 위악이라
 춘풍(春風)을 희석하니 낙이망반(樂以忘返)⁷⁵ 하련마는
 동문(同門)의 춤을 추니 대희부인 가소(可笑)로
 부녀의 상직(常職)이야 유희(遊戲)하기 당할소냐
 우리는 노경(老境)이라 경력이 많사오니
 부모(父母)구고(舅姑)⁷⁶ 외신 후에 금상해운 익은 곡조
 우지낙지 심정으로 울상금지 하려하니
 이후의 남은 광음(光陰)⁷⁷ 임의대로 보낼 지라
 남촌북촌(南村北村) 추축(追逐)⁷⁸하면 그 광경 즐건만은
 그러도 일변(一邊)⁷⁹ 생각 방태할까 조심되어
 호락무황(好樂無荒)⁸⁰ 실슬(蟋蟀)시를 일일삼복(一日三復) 하옵거든
 하물며 젊은 동유(同遊) 소임이 많은 지라
 환소군(桓少君)⁸¹의 녹거(鹿車)⁸²로서 수행(修行)부도(婦道)⁸³ 하온 후에
 맹광(孟光)⁸⁴의 책상(冊床)들어 군자(君子)와 제미(齊眉)하고
 간수가의 말밤 캐서 동묘제사 받드옵고
 때를 따라 길쌈할 제 허물될까 조심하여

봄날이 화창하며 초목(草木)이 맹동(萌動)85하거든
 가가(家家)이 채상(採桑)86하며 잠농(蠶農)87을 힘을 써서
 재현재황(載玄載黃)88 명주로써 공자의 옷을 짓고
 황조우비(黃鳥于飛) 관목(灌木)89하에 칠기90줄이 길어오면
 시에시확(是漑是澆)91 근고(勤苦)92하여 위치위격(爲締爲裕)93 하온 후에
 군자의상 받들어서 복지무역(服之無斃)94 바라옵고
 칠월춘풍(七月春風) 백로시(白露時)95에 촌촌(村村)면화(綿花)96 삼 익히고
 팔월추고(八月秋高) 천기청(天氣淸)에 목화따기 실시말라
 적화(摘花)97삼경(三更) 깊은 밤에 직임(織紵)방적(紡績) 속히 하고
 구월추수(九月秋收) 하올 적에 농부를 거둔 후에
 일년공력(功力) 마치옵고 남은 날이 편하니라
 성인의 태고지법(太古之法) 각별히 명념(銘念)하여
 선동옥녀(仙童玉女) 푸문후에 교훈을 극진하며
 공보문백(公父文伯)98 현모(賢母)되고 산남문호(山南文豪) 창대하면
 일생의 명화(名華)99되고 후세에 이름있어
 만대유전(萬代流傳) 하오리니 그 아니 다행할까
 오늘날 놀음이야 일시의 승사(勝事)로서
 춘광(春光)이 편시(片時)되고 성면이 난재하면
 초루(譙樓)100의 약한 실이 날빛을 못 매나니
 각각으로 돌아가서 헛되이 생각하면
 흥진비래(興盡悲來)101 하는 마음 고금으로 일체니라
 사창(紗窓)에 비낀 달에 사군녀만 회포되고
 우후강남(雨後江南) 안북 비에 형제생각 간절하고
 오주명월(吳州明月)102 맑은 밤에 고인(古人) 생각 금할소냐
 주야불사(晝夜不捨) 물이 되면 백리(百里) 동유(同遊) 하리오며
 후중불천(厚重不遷)103 산이 되면 천리(千里) 상봉(相逢) 하련만은
 인생이 동물이라 조동모서(朝東暮西)104 하는 중에
 규중에 주리함이 우리의 직임(職任)이라
 출입이 어려우니 회합이 용이하라
 적인종부(適人從夫)105 본직(本職)이라 풍운(風雲)같이 흩어지면
 상임(常任)106의 오리발에 서신(書信)도 희소(稀少)하니
 흉중(胸中)에 쌓인 소회(所懷)107 누 능히 다할소냐
 세정(細情)없는 우리 경경 속히 오라 재촉하고
 유해(幼孩)108같은 나의 차자(次子) 편히 오소 부탁하니
 약한 자부(子婦) 어린 손녀 가액(加額)109하고 바랄지라
 오늘밤 지나오면 내 장차 떠날지니
 이이 재산(在山) 석양별이 무정하게 지는 듯 한가
 안계촌 저문 연기 염염(炎炎)이 모여드니

비입심상(飛入尋常) 백성가(百姓家)의 연자(燕子)는 깃드리고
조권비이지환(鳥倦飛而知還)110하니 수풀마다 새소리라
우리도 파좌(破座)하고 각자 귀가 할지어다
면면(綿綿)히 악수하여 도로혀111 말이 없네
무심한 저 춘초(春草)도 년년(年年)이 푸르거든
우리는 사람이라 후기(後氣)가 없을 소나
육십칠십 노인들은 백년영일(百年永日) 강건(剛健)하고
삼십사십 중축(中軸)112들은 가녀영부(領付)113 경사보고
이십청춘 젊은이는 부녀직분(婦女職分) 극진하면
날도 또한 돌아가서 주사산 불로약(不老藥)의
아이들 성심(誠心)받아 녹군 황발(黃髮)114 무가(舞歌)하여
재명년(再明年) 기미세(己未歲)의 우리 백남 환갑되면
또다시 돌아와서 이 모임 하여보세
적적인 심중설화(心中說話) 날날이 다할지면
이태백(李太白)의 청천장지(青天張紙) 오히려 부족이다
어와 동유(同遊)들아 내 말씀 신청하소
양신(良辰)이 무한하고 낙사(樂事)가 또 오나니
심회(心懷)를 과이말고 뒷 기약을 명념(銘念)하소

[각주]

- 1) 십이시(十二時) : 하루를 열둘로 나누어 십이지(十二支)의 이름을 각각 붙여 일컫는 열두시.
- 2) 양신(良辰) : 축하할 일이 있는 날. 경사스러운 날. 혹은 좋은 명절.
- 3) 낙사(樂事) : 즐거운 일.
- 4) 친척정화(親戚情話) : 친척들끼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눔. 진(晉)나라 문인인 도잠(陶潛)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인 ‘열친척지정화(悅親戚之情話)’에서 온 말임.
- 5) 운장(雲長) : 관우의 자(字).
- 6) 심규(深閨) :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집이나 방.
- 7) 생장(生長) : 나서 자람. 또는 그런 과정.
- 8) 요조(窈窕)하게 : (여자의 행동이) 양전하고 정숙하게.
- 9) 작작(灼灼) : 꽃이 환하게 핀 모양.
- 10) 의기가인(宜其家人) : 그 집안의 며느리로 마땅함.
- 11) 군자호구(君子好逑) : 군자의 좋은 짝.
- 12) 백양당지(白楊當地) : 백양나무가 있는 곳.
- 13) 우귀(于歸) : 신부(新婦)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 14) 간간(懇懇)하다 : 간절하다.
- 15) 혼가(婚嫁) : 혼인.
- 16) 적적죽간(籊籊竹竿) : 가지가 없이 길게 뻗은 낚싯대.
- 17) 부모종천(父母終天) : 부모님께서 돌아가심.
- 18) 분수의 가을바람 : 분수 위로 부는 가을 바람. 한(漢) 무제(武帝)가 분수의 동쪽 언덕에 후토사(后土祠)를 짓고 보정(寶鼎)을 얻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분수(汾水)는 중국 산서성(山西省)에서 발원하여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강.
- 19) 현질(賢姪) : 어진 조카라는 뜻으로, ‘조카’를 높여 이르는 말.
- 20) 청려(靑驢) : 털빛이 검푸른 당나귀.
- 21) 자친(慈親) :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22) 일석동락(一席同樂) : 한 자리에서 함께 즐김.
- 23) 중춘(仲春) : 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2월을 달리 이르는 말.
- 24) 화풍서일(和風瑞日) : 서일화풍(瑞日和風). ‘서일상운 화풍감운(瑞日祥雲 和風甘雲)’의 약자, 좋은 날씨, 상서로운 구름, 부드러운 바람과 단비’를 뜻하는 말.
- 25) 품명(稟命) : 상관의 명령을 받는 일.
- 26) 일관(日官) : 길일(吉日)을 잡는 사람.
- 27) 선후(先後)하고 :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 28) 고토(故土) : 고향 땅.
- 29) 의구(依舊) :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음.
- 30) 고산경앙(高山景仰) : 높은 산을 우러러봄.
- 31) 휴수(携手) : 손을 마주 잡는다는 뜻으로, 함께 감을 이르는 말.
- 32) 승당(陞堂) : 마루에 오름. 마루에 오른 후 방에 들어가듯 어떤 일에 차례가 있음을 비유하는 말. 혹은 스승의 문하에 제자로 들어감을 가리키는 말.

- 33) 왕사(往事) : 지나간 일.
- 34) 관중(款重) : 요긴하고 중요함.
- 35) 소일지탄(小一之歎) : 기쁜 일이 있을 때의 사소한 근심 걱정.
- 36) 노경(老境) : 늙어서 나이가 많은 때.
- 37) 왕고래금(往古來今) : 지난 일과 앞으로 올 일.
- 38) 경일(慶日) : 경사스러운 날.
- 39) 헌수(獻壽) : 환갑잔치 따위에서, 주인공에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림.
- 40) 철수화(鐵樹花) : 6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으로 정묘년에만 핏. 국내에는 없지만 수연시(壽宴詩) 등에 많이 쓰임.
- 41) 채무(彩舞) : 반삼채무(斑衫彩舞).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춤.
- 42) 종손(從孫) : 형이나 아우의 손자.
- 43) 재종형제(再從兄弟) : 육촌 형제.
- 44) 청포(靑袍) : 조선 시대에, 사품·오품·육품의 벼슬아치가 공복(公服)으로 입던 푸른 도포.
- 45) 하마(下馬)하니 : 말에서 내리니.
- 46) 차자(次子) : 둘째 아들.
- 47) 옥동(玉童) : 옥동자(玉童子).
- 48) 여남산지(如南山之) :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천보(天保)」 편에 있는 ‘저 남산처럼 오래도록 이지러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라(如南山之壽 不騫不崩)’이라는 구절에서 온 말.
- 49) 유한정숙(幽閑貞淑) : 그윽하고 한가하며 여자의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음.
- 50) 육군자(六君子) : 덕이 높은 여섯 사람. 흔히 우(禹), 탕(湯), 문(文), 무(武), 성왕(成王), 주공(周公)을 이룸.
- 51) 숙취(夙就) : 일찍 성취함.
- 52) 종제(仲弟) : 자기의 둘째 아우.
- 53) 설분(雪憤) : 분한 마음을 품.
- 54) 애들하다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의 향속어.
- 55) 일촌(一村) : 한 마을 전체.
- 56) 심덕(心德) : 마음을 쓰는 데서 나타나는 덕.
- 57) 호사(好事)가 다마(多魔)하니 :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으니.
- 58) 질아(姪兒) : 조카.
- 59) 종질(從姪) : 사촌 형제의 아들로, 오촌이 되는 관계.
- 60) 차제(次第) : 차례(次例).
- 61) 설두(設頭) : 앞장서서 일을 주선함.
- 62) 요지(瑤池) : 중국 전설상의 선녀(仙女)인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다는 곤륜산(崑崙)의 선경(仙境). 이곳에서 서왕모가 주(周)나라의 목왕(穆王)을 만나 주연(酒宴)을 베풀었다고 함.
- 63) 진솔회(眞率會) : 송(宋)나라 때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온 순번에 따라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했던 모임.
- 64) 만화방창(萬花方暢) : 온갖 꽃들이 바야흐로 피어나기 시작함.
- 65) 벌목정정(伐木丁丁) : ‘정정’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 『시경(詩經)』 「소아(小雅)·벌목장(伐

木章)」 “나무를 베는 소리 쩡쩡 울리고 새들은 뽁뽁 울더니 깊은 골짜기에서 날아와 큰 나무로 날아가네. 뽁뽁 우는 것은 그의 벗을 찾는 소리지. 저 새들은 봐도 벗을 찾는 소리를 내거늘, 하물며 사람이 친구를 찾지 않겠는가? 삼가고 따르면 모두 화평케 지나게 되리라.(…)” 이 장은 친구나 오래 사귄 사람들을 잔치할 때 부르는 노래라 하였음.

66) 황조(黃鳥) : 꾀꼬리.

67) 무우(舞雩) : 무우대(無雩臺)를 가리킴. 옛날 기우제를 지내던 곳. 논어(論語) 『선진(先進)』 편에 나오는 풍호무우(風乎舞雩)라는 구절이 나옴.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바를 묻자, 증점(曾點)이 ‘늦봄에 봄옷을 다 갖추어 입고 관을 쓴 사람 5~6인과 동자들 6~7인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쏘인 다음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대답한 데에서

68) 춘복기성(春服既成) : 봄옷이 이미 지어졌음.

69) 난정(蘭亭) : 중국 절강성에 있는 정자. 서성(書聖) 왕희지 등 명사 43명이 모여 주연을 베풀었을 때의 시집(詩集)에 왕희지의 명필(名筆)로 서문(序文)을 붙인 것이 난정기(蘭亭記)임.

70) 유상곡수(流觴曲水) : 음력 3월 3일 삼짇날에, 구곡(九曲)의 유수(流水)에 술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詩)를 짓는 놀이.

71) 창서유정(暢敘幽情) : 왕희지가 난정(蘭亭)에서의 연회로 만든 시집에 쓴 서문 난정기(蘭亭記)의 한 구절.

72) 동유(同遊) : 동무.

73) 교교백구(皎皎白駒) : 성현(聖賢)이 타는 말.

74) 기인여옥(其人如玉) : 인품이 옥과 같이 맑고 깨끗한 사람.

75) 낙이망반(樂以忘返) : 즐거워 돌아갈 줄 모름.

76) 구고(舅姑) : 시부모.

77) 광음(光陰) : 세월.

78) 추축(追逐) : 친구끼리 서로 오가며 사귀.

79) 일변(一邊) : 어느 한편.

80) 호락무황(好樂無荒) : 즐기되 지나치지 않음. 『시경(詩經)』의 한 구절.

81) 환소군(桓少君) : 한나라 포선(鮑宣)의 아내 이름.

82) 녹거(鹿車) : 삼거(三車)의 하나. 삼승(三乘)의 하나인 독각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3) 부도(婦道) : 여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84) 맹광(孟光) : 중국 한나라 때 양홍(梁鴻)의 아내. 남편을 지극히 섬기었음. 거안제미(舉案齊眉)로 유명한데, 밥상을 높이 들어 눈썹과 가지런히 한다는 존경의 뜻을 나타냄. 맹광(孟光)이 남편 양백란(梁伯鸞, 梁鴻)의 인격을 존경하여 높인 이야기에서 온 말.

85) 맹동(萌動) : 싹이 남.

86) 채상(採桑) : 뽕을 따.

87) 잠농(蠶農) : 누에 농사.

88) 재현재황(載玄載黃) : 검고 노랗게 물들인.

89) 관목(灌木) : 떨기나무.

90) 칠기 : 칠.

- 91) 시예시확(是刈是穫) : 베어내고 삶아냄.
- 92) 근고(勤苦) : 마음과 몸을 다하여 애씀.
- 93) 위치위격(爲締爲裕) : 가는 베 굵은 베를 만듦.
- 94) 복지무역(服之無斃) : 옷 지어 입으니 싫지 않음.
- 95) 백로시(白露時) : 이십사절기의 하나.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들며, 9월 8일경.
- 96) 면화(綿花) : 목화.
- 97) 적화(摘花) : 꽃 따기.
- 98) 공보문백(公父文伯) : 노(魯)나라 계강자(季康子)의 종부형제(從父兄弟).
- 99) 명화(名華) : 명문(名門).
- 100) 초루(譙樓) : 궁문, 성문 따위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
- 101) 흥진비래(興盡悲來) :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
- 102) 오주명월(吳州明月) : 오나라 땅 밝은 달.
- 103) 후중불천(厚重不遷) : 두텁고 정중하며 쉽게 바뀌지 않음.
- 104) 조동모서(朝東暮西) : 아침에는 동녘에 있다가 저물녘에는 서녘에 옮겨 있다는 말로 동분서주함을 말함.
- 105) 적인종부(適人從夫) : 시집을 가면 남편의 뜻을 따름.
- 106) 상임(常任) : 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음.
- 107)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108) 유해(幼孩) : 어린 아이.
- 109) 가액(加額) : 잘 보려고 이마에 손을 얹는다는 뜻으로, 사람을 몹시 기다림을 이르는 말.
- 110) 조권비이지환(鳥倦飛而知還) : 날다 지친 새는 돌아올 줄을 아네.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
- 111) 도로혀 : 도리어.
- 112) 중축(中軸) : 사물이나 사건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일 또는 그런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13) 영부(領付) : 영솔(領率)하여 부속(附屬)시킴.
- 114) 황발(黃髮) : 70-80세의 노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